

전문가 150명 참여한 심포지엄 오늘의 문제와 未來예측

한국 21세기
李洪九 외

朝鮮日報社/A5신/328면/3500원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어둡게 우리들의 視界를 가리고 있던 濃霧地帶라고나 할 88년의 전망이 12·16의 대통령 선거를 치름으로써 어느정도 풀린 마당에, 88 이후를 내다보고 생각해 보는 데에 씩 좋은 길잡이가 될 良書가 나왔다.

李洪九 외 아홉사람이 편집자가 되고 조선일보사가 발행자가 된 「한국 21세기-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가 그것이다. 여기서 굳이 발행자의 이름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신문사 출판국의 여느 도서간행사업 이상의 큰 뜻이 있는 大프로젝트요, 그리고 그것도 조선일보와 같은 대신문사만이 능히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창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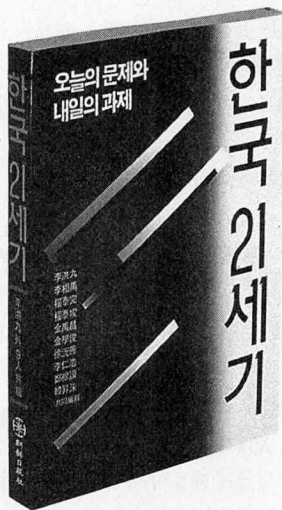
원래 이 프로젝트는 李相禹교수(서강대)의 발의로 모인 10명의 학자들의 구상을 1985년에 창간 65주년이 되는 조선일보사에서 지원하여, 조선일보 21세기 모임 年中 기획시리즈로 「21세기-오늘의 전개」라는 題下에 지면에 장기 연재했던 내용을 한편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知性的의 향기가 芳郁한 말의 알찬 의미에서의 一大 심포지엄이다. 거의 1년을 계속했던 이 知的인 饗宴에 참여한 사람만도 무려 150명-작곡가에서 과학자, 승려, 의사, 소설가에서 기업인, 그리고 거의 모든 학문분야의 석학들이 참여하여 저마다의 視覺에서 21세기로 가는 한국의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대해서 수준높은 토론을 전개해 주고 있다.

토론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민족' '역사' '인간'이요, 그를 다루기 위해서 물리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 여러 환경을 35개의 주제로 나눠 성찰하고 있다.

방법은 미래예측에서 흔히 허용하는 外挿法이나 통계적 접근, 혹은 전문가들의 豫言을 수렴하는 델파이 방식 등에 기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상과 발언을 끌어내는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을 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성의 향연다운 것이다.

향연의 廚房을 맡은 '호스트'의 편에 서본다면, 이처럼 고급스런 지성의 성대한 잔치에 드는 비용은 그 실경비만도 수억원이 들었으리라 금방 주먹구구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조선일보사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한 功은 단지 그 막대한 경비를 뒤집어썼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官邊에서 독점하다시피 했던 미래예측의 비싼 작업을 이제 처음으로 민간에서 기획하고 훌륭하게 실현시켜놓았다는 데에 큰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책의 편집자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시각을 官邊의 낙관론이나 敎條的 비판론이 자아내는 환상이나 절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귀중한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에 그 공은 있는 것이다.

이 책의 편집자이자 동시에 스스로의 비평가이기도 한 李洪九교수가 술회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이 책에는 마땅히 다뤄야 할 함에도 다루지 못한 구석도 있다. 各論식으로 斷面的 분석에 치우치다보니 총론적인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미흡한 점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오늘의 한국에서 미래思考의 수준을 대표하는 책이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의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어떠한 사람도 이 책을 스쳐 지나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 속에 침잠해본다면 누구나 그 報償을 얻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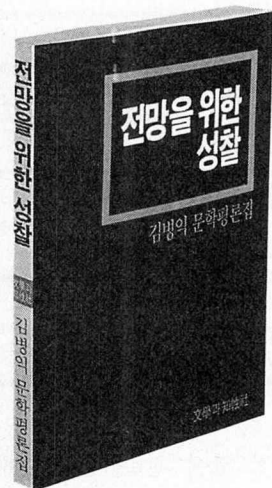
崔禎鎬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울대 문리대 철학과 졸.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수료. 베를린 自由大學校 졸. 철학박사. 저서 「아버지 독재자」 「없는 것을 찾는 젊은이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다」 외. 1933년생.

80년대의 문학적 쟁점 분석 문화비평의 일관성 돋보여

전망을 위한 성찰
金炳翼 著

文學과 知性社/A5신/346면/4000원



김병익의 비평작업은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들이는 비평작업이다. 그의 언어는 모나지 않고, 그의 논리는 다루는 대상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다루는 대상의 자리에 자신을 먼저 놓아 봄으로써 그것을 이해하고 감싸들이는 비평을 해나간다. 따라서 그의 글 속에는 비판은 있지만 미움은 없다. 그의 글은 언제나 따뜻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움이 배어들 여지가 없다.

김병익의 비평이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들이는 비평이라는 것은 그가 대상을 다루는 방법, 그가 전개하는 논리, 그가 사용하는 문장 등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편의상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그의 문장은 "...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라든가, "...수 있을 것임을 뜻한다"라든가, "...로 이해된다"와 같은 서술구조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가 대상을 감싸들이는 태도를 문체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의 문체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단정보다는 이해의 노력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태도의 언어적 표현인 것이다.

김병익의 서평은 대상을 너그럽게 감싸들이면서도 대상에 손쉽게 동화되지 않는 비평이다. 그것은 첫째 그의 비평이 대상에 대한 일종의 찬양으로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려는 한 방법으로 씌어지기 때문이다. 대상을 찬양하거나 매도하는 비평은 비평하는 사람 자신이 대상에 매몰되거나 이탈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김병익의 비평은 그처럼 비평의 주체가 흔들리는 비평이 아니다. 그의 비평행위에서 주체는 언제나 교양인 김병익이며, 그런만큼 감싸들이는 행위의 주체도 그이다. 그의 비평의 대상이 손쉽게 동화되지 않는 둘째 이유는 그의 비평이 끊임없는 반성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의 비평은 외적으로 비평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미 씌어진 글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을 조용하게 환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을 되풀이 반성한다. 그는 타인의 글을 읽으며, 그 글과 함께 자기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

김병익의 비평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이번의 「전망을 위한 성찰」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이 책 역시, 80년

대의 중요한 문학적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는 현재적 의미가 보다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그의 비평이 견지해 온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번의 「전망을 위한 성찰」에서 필자는 이 같은 비평태도의 일관성과 함께 문학 그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의 관심축이 문학을 이탈하지 않는 일종의 문화비평가로서의 김병익의 일관성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70년대에 지식인들을 감동시킨 「지성과 반지성」의 저자로서의 그의 문화전반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이번 평론집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구체적 예가 이 책의 제1부이다. 제1부에서 그가 보여주는 관심의 폭넓음은 일견 문학평론가로서의 김병익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의 비평 역시 곳곳에 고르게 스며 있는 문화전체에 대한 관심이 뒷받침되어 있다. 이 관심이 사회학적 색채를 보다 많이 띠고 나타난 것이 제1부일 따름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에서 말한 비평태도와 함께 생각할 때 김병익의 비평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교양인의 비평이라고 생각한다.

洪廷善

문학평론가. 한신대 국문과 교수. 서울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 저서 「역사적 삶과 비평」. 1953년생.

농업문제의 이론과 현실 한국자본주의 논쟁에 활력소

土地問題와 地代理論：農地改革의 現代史的 意義

金俊輔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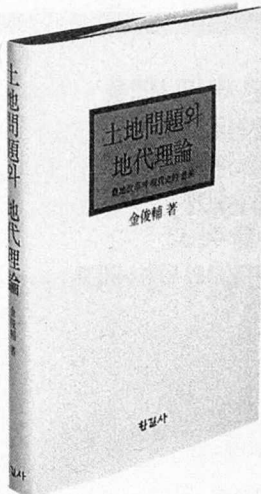
한길사/A5신/306면/4200원

金俊輔교수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와 창시자이며, 전남대·고려대를 거쳐 한신대 교수로 정년퇴직한 한국 경제학계의 원로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의 명예회장이자 학술원 회원이기도 하며, 경제학계에서는 70을 바라보는 노령임에도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정력적인 저술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의 경제학은 고회를 바라보는 오늘날 총질산을 서두는 듯하지만 아직도 샘플처럼 끊이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줄곧 그러했지만,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원로들 가운데 학문적으로 가장 업적이 많은 분을 꼽는다면 金俊輔교수를 서슴없이 꼽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번에 발간된 「土地問題와 地代理論」은 1966년의 「농업경제학서설」, 1970~75의 「한국 자본주의사 연구」 I~III권, 1981년의 「현대 경제학서설」, 1986년의 「경제학기초논고」 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토지문제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분석을 시도한 업적이다.

이 책은 전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 문제에 관한 이론·역사·정책이 망라되어 있어 대학의 농업정책 교과서로서도 널리 학생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이론면을 다룬 것은 제7장 토지소유와 지대의 특성, 제8장 자본주의의 발전과 소농지대, 제9장 고전적 지대학설 비판, 제10장 지대와 농산물가격 구성 등이다. 이에 대해서 토지문제의 역사적 측면을 다룬 것은 제1장 토지문제의 세계사적 배경, 제2장 일제하 한반도의 토지문제 등이다. 또 토지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논한 부분은 제3장 토지문제의 기본적 유형, 제4장 토지개혁의 이념적 배경, 제5장 토지개혁의 세계적 진행(소련·동구·아시아), 제6장 한국 농지개혁의 의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김준보교수가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스럽게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토지문제를 통하여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일찌기 일제하의 한국 농업이 일본독점자본의 지배로 말미암아 반봉건성을 탈피하고, 지주가 자본가로 바뀌고 소작인이 노동자로 바뀐으로써 사실상 자본주의적 농업으로 되었다는 주장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는 일찌기 평자의 비판이 있었고, 최근에는 안秉直교수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와 같은 비판에 대한 金俊輔교수의 반비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金교수는 종전의 비판에는 일체 언급함이 없이, 자기주장을 전개함에 있어 특유의 고집스러움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논지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외국학자의 문헌은 인용하면서도 국내 학자의 문헌에는 거의 언급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의 많은 책들이 범하고 있는 통폐라고 하겠거니와, 이것은 학문의 사대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국적있는 학문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이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겠지만, 앞으로 이 책이 한국자본주의의 성격논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작으로 될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朱宗桓

동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일본 동경대 및 대학원 졸업. 경제학박사. 저서 「농업경제학연구」 「한국적 경제학」 「재벌경제론」 「경제원론」. 1929년생.

한국복식사 연구의 새로운 시도 服飾美學의 방법적 접근

韓國 服飾美의 研究

金榮子 著

韓國研究院/A5/284면/비매품

김영자 교수의 「韓國服飾美의 研究」는 복식미학의 방법적 접근을 보인 새로운 복식연구서이다. 한국의 복식사연구는 짧은 연륜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복식사 연구의 패러다임은 가령 '복식 풍속사의 연구'나 '복식위생학' '복식미학'과 같은 새로운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복식미학은 말하자면 복식사와 미학을 결합한 연구체계로, 그것은 복식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그 표현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의 시도인 것이다. 복식을 표현이란 미적 의식에서 살피면서 그 미의식이 민족복식의 역사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방법상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복식의 표현적 관점은 옷을 짓거나 입을 사람의 의식 뿐이 아니고, 옷의 형태와 線, 색깔과 무늬(紋樣) 등에서 그 옷이 유행한 시대의 미의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복식미 연구의 중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복식미학은 복식의 實物 못지않게 복식에 대한 그림이나 문학작품이며 시대적 미적 제문화에서 더 많은 대상을 찾게 된다.

김영자 교수의 이 책은 서론에서 한국복식미학의 제기, 그 대상과 방법 등을 논하고, 제2,3,4장에서 그 구체적 연구 논문 셋을 한데 묶고 있다. 제2장에서는 '한복 소매의 변화와 미의식', 제3장에서는 '한복의 형태미 고찰', 제4장에서는 '한복에 표현된 미의식'을 다루고, 다음에 결론을 덧붙이고 있다.

이 논문들에서 저자는 특히 한국복식의 미적 표현의 중점을 저고리(上衣)에서 찾고 있다. '한복소매'를 다룬 제2장이 전적으로 이 저고리의 소매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저자가 한복에 내재한 固定線과 可變線의 이론을 안출함으로써 커다란 회열을 감추지 못했다는 고백에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점이다. 이처럼 한복 저고리와 그 소매의 변천사를 통해서 한국복식의 미의식을 추구한 것은 탁견임에 틀림없다.

한복의 저고리와 상체 부분에 대한 저자의 관심은 소매의 변천사 뿐 아니고, 제3장의 黃金比例美의 분석, 한복의 트임의 고찰에서도 즐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저고리의 변천사에 대한 관심은 저자로서여금 필연적으로 특히 한복의 線의 美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



고 있다. 이곳에서 저자는 한국 민족복식의 미적 특성을 발견하려는 의욕으로 지나칠만큼 장황한 필치를 보인다. 한복의 分割美와 노출미, 여유미와 配色美 등의 심미적 특징이 여기서 모두 결론으로 도출되고 있다.

제4장의 '한복에 표현된 미의식'에서는 전통무용복을 중심한 색채의 고찰이 두드러져 있다. '의례' 등에 보이는 宮中女舞服色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미적 표현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일된 주제는 설득력을 얻지 못한 느낌이다.

이 책은 기다란 세계의 논문을 한 책으로 묶은 논문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서로서의 불통일성은 저자의 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는 셈이다. 우선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크기에서 위상개념이 질서를 잃은 느낌이다. 그리고 미학적 방법론에 대한 자각이 일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도단계에 있는 복식미학의 구체적 작업이, 한복 소매의 변천사나 황금비례미와 같은 대담한 주제로 묶여 출간된 점은 복식학계에 커다란 자극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선조 저고리의 변천과 복식미적 유행의 역사에 매개한 中人계급으로서 針母의 중요성에 착안한 점은 놀라운 발견이다. 여기에 남성사회의 미의식이 연관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金泰俊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교수. 비교문학 전공. 동국대학교와 동경대학 대학원 비교문학·비교문화과정에서 수학. 문학박사. 저서 「壬辰亂과 朝鮮代의 東漸」 「春香傳比較研究」 「洪大容評傳」 등. 1939년생.